경찰, 폭력 학생 속속 잡아 들인다

장흥, 상습 폭행 돈 갈취 고교생 4명 체포

광주 사망 중학생 가해자 영장, 2명 입건

경찰이 학교 폭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피해학생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장흥경찰은 5일 후배를 상습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정모(18)군 등 4명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17)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군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 후배 강모(17)군 등 21명으로부터 250여 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학교 후배 장모(17)군 등 10명을 4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멍자국이 드러나지 않는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광주 모 중학생 A(14)군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북부경찰은 5일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가해자 B(14)군에 대해 폭행 및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선배 1명과 다른 동급생 1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중학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방학을 하루 앞당긴 점과 학교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 관계 감독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광주동부경찰은 이날 충장로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여중생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지난 4일 '같은 중학교 선배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광주남부경찰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중학생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김대성·김경인기자 bigkim@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학교갈 준비 됐어요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태봉초등학교에서 열린 2012학년도 취학대상자 1차 면접에서 한 어린이가 아라비아 숫자를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손가락을 펴 가며 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횡령 혐의 목포과학대학 간부 자살

검찰 출석 앞두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목포 과학대학 간부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오전 9시25분께 목포시 용해동 A(49)씨의 집 보일러실에서 A씨가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전날 A씨가 귀가하지 않아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는데 오전에 보일러실을 열어보니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목포 과학대학 산학협력단 간부직원인 A씨는 전날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학이 국고보조금 9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학은 2006년부터 3년 동안 정부로부터 6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수억원을 교수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성폭행범 출소 하루만에 대낮 여중생 2명 성추행

광산경찰, 3시간만에 검거

성폭행으로 복역 후 출소 하루 만에 여중생들을 또다시 강제추행한 20대가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5일 여중생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고모(21)씨에 대해 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 A(13)양 등 2명을 폭행하면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고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모 교회 인근에서 여중생 B(13)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08년에도 초등생 3명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잇따른 성폭행 사건으로 3년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3일 출소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임병석 C&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경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5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게 1심(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 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42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檢, 단순 진정·탄원 경찰에 지휘 않는다

광주지검 등 내사 당분간 보류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가 잇따르자 검찰이 단순 진정·탄원 등은 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소·고발 등 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지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5일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 사태와 관련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탄원 등은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대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소·고발사건에 준해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미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가 시작되자 최근 내사와 수사 구분이 애매한 진정사건은 당분간 지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은 내사지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내사 지휘를 하려 했으나 대구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를 보류했다"며 "내사 지휘 문제만이 아니라 호송 문제 등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CCTV 관제센터 KT, 입찰 무효 확인訴

광주시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KT가 입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1월 제기한'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인용하자 최근 법원에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업은 광주시내에 설치된 CCTV 2000여대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SKT 컨소시엄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 과정의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골 미용실만 골라 수천만원 금품 털어

쌍나팔

○…강진, 해남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시골 미용실만을 골라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5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여·46)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5시30분께 강진군 모 미용실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는 등 지난 석 달 사이 모두 28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지난해 5월 출소한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군 단위 미용실을 돌며 미용사와 손님이 머리 손질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범행.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독일, 3번 걸리면 퇴학 '삼진 아웃제'

학교폭력 이대론 안된다

❹ 선진국 대처 사례

미국, 부모 소환 불응땐 경찰 고발

영국, 가해학생 순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응책은 기어가는 수준"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학교 폭력 대응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결코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는 지난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교사들의 진단이다.

광주지역 일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진국처럼 폭력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독일의 삼진 아웃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부모를 불러 상담한 뒤 두 번째 적발되면 옐로카드, 3번째는 퇴학시키는 대응시스템이다. 가해학생은 전학이 결정되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학교로 옮겨가야 하는 등 사실상 퇴출된다.

학교폭력을 '쉬쉬'하는 교단풍토를 바꾸기 위해 일정 수위를 넘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과감히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학교는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타 학생을 괴롭힌 경우 부모를 즉각 소환한다. 소환통보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즉시 학교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며,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학칙에 따라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를 함께 불러 교육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의 도입을 강조한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위한 정서장애학교를 둔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은 한 학기 정도 매주 한 차례 이 학교에 가서 상담 등의 순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진규 광주시교육청 인성담당 교사는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퇴출하는 방안 보다는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2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9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강력단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